

<표> '10년 2분기~'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생산변동

업종별	2010년				2011년					2012년
	2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3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4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2010 (전년대비)	1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2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3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4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2011 (전년대비)	1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콘텐츠산업*	121.0 (-1.9%) (1.3%)	131.4 (8.7%) (5.6%)	122.3 (-6.9%) (0.5%)	124.5 (3.7%)	124.1 (1.4%) (0.6%)	127.3 (2.6%) (5.3%)	138.1 (8.5%) (5.1%)	132.1 (-4.3%) (8.0%)	130.4 (4.7%)	130.2 (-1.5%) (4.9%)
콘텐츠제작업	114.0 (-10.9%) (-0.8%)	143.7 (26.0%) (8.5%)	121.1 (-15.7%) (-6.6%)	126.7 (3.7%)	121.4 (0.2%) (-5.1%)	119.7 (-1.4%) (5.0%)	149.0 (24.5%) (3.7%)	139.6 (-6.3%) (15.3%)	132.4 (4.5%)	132.2 (-5.3%) (8.9%)
콘텐츠도매업	124.8 (1.2%) (4.2%)	122.2 (-2.1%) (8.1%)	125.2 (2.5%) (5.9%)	123.9 (6.8%)	127.0 (1.4%) (3.0%)	131.7 (3.7%) (5.5%)	127.5 (-3.2%) (4.4%)	132.6 (4.0%) (5.9%)	129.7 (4.7%)	133.9 (1.0%) (5.4%)
콘텐츠소매업	125.1 (5.5%) (3.0%)	124.1 (-0.8%) (4.1%)	118.2 (-4.7%) (4.0%)	121.5 (4.1%)	119.8 (1.4%) (1.1%)	130.7 (9.1%) (4.5%)	127.1 (-2.8%) (2.4%)	120.5 (-5.2%) (1.9%)	124.5 (2.5%)	117.6 (-2.4%) (-1.9%)
콘텐츠임대업	115.1 (0.8%) (2.2%)	116.3 (1.0%) (2.6%)	119.4 (2.7%) (3.0%)	116.2 (3.1%)	117.3 (-1.8%) (2.7%)	117.9 (0.5%) (2.4%)	120.4 (2.1%) (3.5%)	123.5 (2.6%) (3.4%)	119.8 (3.1%)	123.3 (-0.2%) (5.1%)
콘텐츠서비스업	125.8 (-5.2%) (-2.0%)	151.0 (20.0%) (4.5%)	127.8 (-15.4%) (-2.4%)	134.3 (1.2%)	134.8 (5.5%) (1.6%)	136.6 (1.3%) (8.6%)	166.4 (21.9%) (10.2%)	144.4 (-13.2%) (13.0%)	145.5 (8.4%)	144.0 (-0.3%) (6.8%)
오프라인 서비스업	108.3 (-13.3%) (-0.3%)	143.7 (32.7%) (8.9%)	106.9 (-25.6%) (-10.0%)	120.9 (3.2%)	116.8 (9.3%) (-6.4%)	113.3 (-3.0%) (4.7%)	150.1 (32.5%) (4.5%)	123.3 (-17.9%) (15.3%)	125.9 (4.1%)	128.0 (3.8%) (9.5%)
온라인 서비스업	143.3 (2.1%) (-3.2%)	158.2 (10.4%) (0.7%)	148.6 (-6.1%) (3.9%)	147.6 (-0.3%)	152.8 (2.8%) (8.8%)	159.8 (4.6%) (11.5%)	182.7 (14.3%) (15.5%)	165.5 (-9.4%) (11.4%)	165.2 (11.9%)	160 (-3.3%) (4.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8.8 (5.8%) (0.8%)	118.7 (-0.1%) (2.4%)	131.2 (10.5%) (3.7%)	120.3 (2.2%)	116.6 (-11.1%) (3.8%)	122.8 (5.3%) (3.4%)	125.3 (2.0%) (5.6%)	137.6 (9.8%) (4.9%)	125.6 (4.4%)	121.4 (-11.8%)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4.4 (20.7%) (2.1%)	123.8 (-0.5%) (1.2%)	120.8 (-2.4%) (4.6%)	118 (1.6%)	110 (-8.9%) (6.7%)	130.8 (18.9%) (5.1%)	130.9 (0.1%) (5.7%)	127.5 (-2.6%) (5.5%)	124.8 (5.8%)	118.7 (-6.9%) (7.9%)
서비스업생산지수	136.9 (3.1%) (6.3%)	135.8 (-0.8%) (4.1%)	142.8 (5.2%) (5.3%)	137.1 (5.9%)	139.6 (-2.2%) (5.1%)	144.5 (3.5%) (5.6%)	145.5 (0.7%) (7.1%)	150 (3.1%) (5.0%)	144.9 (5.7%)	145.5 (-3.0%) (4.2%)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는 업종만 고려

\*\* 통신업,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포함됨

\*\*\* 공연산업 외 스포츠산업 및 기타 문화산업 포함됨

1) 콘텐츠 임대업은 만화 임대업 등을 의미

2) 오프라인 서비스업은 오락장 운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등을 의미

□ 분기별 : 콘텐츠산업 생산은 '08년 4분기에서 '09년 3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며, '09년 4분기부터 '10년 4분기까지 등락을 나타냄. '11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상승세가 유지되다가 '11년 4분기부터 하락세로 반전

- '09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상승세가 4분기에 들어 2.2% 하락. '10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다소 큰 폭의 등락을 나타냄. '1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분기대비 1.4%, 2.6%, 8.5% 상승하다가 4분기에 들어 전분기대비 하락했으며 '12년 1분기는 전분기대비 1.5% 하락
  - 전체 서비스업생산은 '09년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10년 1분기부터 '11년 1분기까지 등락을 나타냄. '11년 2분기 이후 전반적인 상승기조를 유지하다가 '12년 1분기에 들어 하락했으며 전분기대비 3.0% 하락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09년 1분기에서 '11년 1분기까지 1분기 및 3분기 하락, 2분기 및 4분기 상승의 등락 패턴을 보임. '11년 2분기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12년 1분기는 전분기대비 11.8% 큰 폭으로 하락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09년 3분기부터 '11년 1분기까지 하락세에서 '11년 2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하다가, '12년 1분기는 '11년 4분기의 하락에 이어 전분기대비 6.9% 큰 폭 하락

□ 가치사슬 단계별 : 소매업을 제외한 전 분야의 콘텐츠산업 생산이 '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11년 1분기 이후 분야별 성장편차 지속

- 콘텐츠제작업은 '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해 '1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콘텐츠서비스업은 그 다음으로 6.8% 증가해 '11년 2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성장을 나타냄
  - 콘텐츠서비스업에서 오프라인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해 '11년 4분기에 이어 상대적으로 온라인서비스에 비해 높은 성장
  - '12년 1분기는 거시적으로 유럽발 금융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수요 부분 등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으로 지속적인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 안정적인 수요 인프라 구축 등으로 게임 등 온라인 및 모바일과 연계된 콘텐츠 수요가 공급 증대를 견인. 향후 1) 유럽금융위기 등 대외 리스크와 연계된 국내 경기 악영향 2)

미국, 중국 등 국내 주요 교역국가들의 경기 상승여부 등 거시적 측면의 긍정·부정요인들이 있음에도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콘텐츠 분야들을 중심으로 수요 및 생산증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09년 3분기 이후 '11년 4분기까지 경기상승이 이어지면서 콘텐츠 수요는 전반적인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온라인 분야를 중심으로 임대 및 직접구매 등 다양한 소비패턴이 나타남. 향후 이러한 콘텐츠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가 우려됨에도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확대가 전망됨

- 콘텐츠제작업은 '10년 1분기에서 '11년 1분기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11년 2분기부터 성장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12년 1분기는 전분기대비 -5.3%로 '11년 3분기 이후 하락세
- 콘텐츠도매업은 '10년 2분기 이후 전반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12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전분기대비 1.0% 상승
- 콘텐츠소매업은 '10년 2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증가를 보이다가 '12년 1분기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11년 2분기 이후 전분기대비 하락세이고 '12년 1분기는 2.4% 하락
- 콘텐츠임대업은 전반적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0년 2분기 이후 전분기대비 상승세를 보이다가 '12년 1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2% 하락
- 콘텐츠서비스업은 '09년 2분기에서 '10년 4분기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11년 1분기부터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11년 4분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업이 전분기대비 동반 하락세를 보였으며 '12년 1분기는 온라인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3.3% 하락